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

| 보도 | 2024.9.4.(수) 10:00 | 배포 | 2024.9.3.(화)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 | 책임자 | 국 장 정우현 (02-3145-8020) |
| | | 담당자 | 팀 장 안신원 (02-3145-8040) |
| | 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 | 책임자 | 국 장 서영일 (02-3145-7460) |
| | | 담당자 | 팀 장 곽정민 (02-3145-7455) |
| | 중소금융감독국 건전경영팀 | 책임자 | 국 장 이종오 (02-3145-6770) |
| | | 담당자 | 팀 장 이희성 (02-3145-6773) |

이복현 금융감독원장, 「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」 실시

I 간담회 개요

-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'24.9.4.(수)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최근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, 시장전문가, 금융권 협회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
-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한 대출 실수요자 및 은행 창구직원 등 영업 현장의 애로·건의사항과
- 부동산시장 전문가, 업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등을 청취

※ 현장간담회 개요

- (일 시) '24.9.4.(수) 10:00~11:00
- (장 소) 국민은행 본점 (영등포구 여의도 소재)
- (참석자)
 - (금융감독원) 이복현 원장, 은행 부원장보, 은행·중소금융·보험 감독국장
 - (금 융 권) 은행연합회, 농협중앙회, 생명보험협회 임원
 - (실수요자) 개인 고객 6명, 은행 영업점 직원 2명
 - (전문가 등) 부동산시장 전문가 등 4명

II 금융감독원장 발언 요지

- 최근 서울·수도권 중심 주택시장 회복,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
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한 상황으로,
 - 대출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 불균형이 심화
되고 주택 실수요자의 불안심리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
 -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,
 -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
계획임을 재차 강조

□ 또한,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강화와 관련하여

- ①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
바람직하나,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
관리해 줄 것을 당부*

* 특히, 은행 자율적 심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신청을 접수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한
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 필요

- ②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상환액 규모(월평균 약 12조원 추산)를
감안할 때,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면,
대출규모를 관리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에게 중단 없이 자금
공급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- ③ 한편, 최근 대출 정보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간 대출수요가
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

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·중소금융 등 쏠 금융권이 합심하여
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

□ 금융감독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가계 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

○ 또한 소금융권 대출 창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*하고,

- 금융회사 간 쏠림 현상도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

* 보험·상호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 일일 모니터링 체계 가동

□ 아울러,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PF 재구조화 및 부실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,

○ 오늘 공급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해주신 의견을 유관부처에 전달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

(별 첨)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